

2024 모니터링 보고서

# KBS 뉴스9 모니터링

: 정권은 받아쓰고,  
여야는 기울여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 목 차 •

I. 모니터링 배경.....	3
II. 모니터링 방법.....	3
III. 모니터링 결과.....	4
• 문제점1. 여당과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편향된 보도가 많다.....	5
• 문제점2. 소수정당에 대한 보도가 부족하다.....	13
• 문제점3.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 행태가 보인다.....	14
IV. 나가며.....	21

## I. 모니터링배경

공영방송 KBS가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12일,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박민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박민 사장의 임명과 동시에 KBS에는 전례 없이 빠른 인사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지상파 최초로 ‘여성 단독 평일 메인뉴스 앵커’로 발탁되었던 이소정 앵커는 갑작스런 하차 통보에 인사도 없이 뉴스를 떠나야 했고, KBS의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새로운 MC로 화제를 모았던 김신영씨 역시 갑작스럽게 하차를 통보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표기한 지도이미지를 뉴스 보도에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키는가하면, 대통령 특별담화 녹화방송을 제작하면서 ‘정권의 나팔수’·‘땡땡방송’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뉴스브런치(라디오)>, <역사저널 그날(TV)>, <홍김동전(TV)> 등 우수한 시사·예능프로그램들이 연달아 폐지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폐지된 다수의 프로그램이 여성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관련 민우회 인터뷰 기사 읽기\]](#)

한편, KBS는 지난 2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다큐 인사이트>팀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을 내부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KBS는 “4월 총선 시기에 민감한 아이템이 총선 일자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6월 이후 방송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해당 방송은 결국 제작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관련 민우회 성명보기\]](#)

이에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은 KBS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정치 관련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공영방송 KBS가 정권·권력·총선으로부터 얼마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던 공영방송의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권은 받아쓰고, 여야는 기울여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입니다.

## II.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대상: KBS 1TV <뉴스9> (매일 밤 9시 방송)
- 모니터링 기간: 2024.2.16.(금)~2024.2.29.(목) (2주차 방송분)
- 모니터링 방법: ①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뉴스클립 다시보기 ②모니터링 도구에 문제유무 및 내용 체크 ③문제된 내용을 직접 캡처하고 작성하는 질적 분석
- 모니터링 참여 인원: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4인(노새, 수달, 여경, 영지)

### Ⅲ.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대상 기간인 2024년 2월 16일~2월 29일(2주)동안 보도된 전체 뉴스 꼭지는 총 420개로, 이 중 날씨, 스포츠, 문화 관련 뉴스를 제외한 정치·사회 관련 꼭지 282개에 관해 집중 모니터링하였으며, 이 가운데 ‘문제 있음’으로 체크된 보도 꼭지는 총 77건(27.3%)이었습니다. 문제적 내용은 크게 1) 언어사용의 문제, 2) 편향적인 분량의 문제, 3) 정권홍보성 보도, 4) 화면 구성의 문제, 5) 기타 5가지 항목에 대해 체크하였으며(중복체크 가능), 체크한 항목에서 느낀 문제점을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술한 내용을 취합한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문제 있는 보도: 77건, 27.3%** (전체 420개 꼭지 중 정치·사회 관련 뉴스 꼭지 282건 집중 분석)

- 1) 언어사용의 문제(36건): 긍/부정 단어/어미를 편향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
- 2) 편향적인 분량의 문제(27건): 특정집단의 의견을 더 길게 보도하는 경우 등
- 3) 정권홍보성 보도(21건): 무맥락/부비판적으로 특정 집단/정권의 치적을 미화하는 경우 등
- 4) 기타(13건): 기타 문제적 보도
- 5) 화면구성 문제(7건):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이미지 크기 등을 부적절하게 배치한 경우 등

〈표 1〉 전체분석결과 요약(많은 순)

그 중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이 주목한 문제점 몇 가지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 문제점1. 여당과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편향된 보도가 많다

**1) 야당 관련 보도에 자극적/부정적 언어를 더 많이 사용: 정치인들의 자극적 말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 많이 보여**

모니터링 기간인 2월 중순~말은 선거 공천 관련 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주로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진행 관련 소식을 다루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이야기는 텅텅 빈 정치권과, 그 공백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양당의 권력 다툼을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공천 관련 두 거대 양당에 관한 KBS의 보도 형태를 일단, 비교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여당의 보도에 비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관한 보도에서 유난히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보도에서는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보도에서는 ‘밀실 공천’, ‘자객’, ‘협잡’, ‘뒷거래’, ‘음험한’, ‘공천 학살’과 같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각 정당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자극적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도 많았으나(‘국민에게 사기치는 것’), 보도 멘트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당 공천 보도에 쓰인 언어	야당 공천 보도에 쓰인 언어
<p>속속 드러나는 총선 대진표(2/16) 시스템 공천(2/19) 시스템 사천(2/25)</p>	<p>밀실 공천, 논란 제기, 반발 터져 나옴, 심야 회동,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각종 비위 의혹, 갈등이 확산할 것, 뇌물 수수 혐의, 친문 패권(2/16) 내홍 격화(2/18) 자객, 밀실, 사천, 논란 계속, 맹비난, 음험한, 뒷거래, 협잡, 난무, 의석 나뉘먹기에 골몰, 배신, 국민에게 사기치는 것(2/19) 사천, 논란, 비명, 갈등 확산, 공천 학살, 의혹, 패거리 정치, 모욕, 밀실, 사천, 저격 공천, 배제의 정치, 파괴(2/20) 비명공천 학살 논란, 자기 범죄 변호사비 대납하는 것, 막말과 음모론, 저질 공세(2/23) 거액의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공천을 둘러싼 갑음,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2/25) 친명 친문간 갈등이 격화, 당내 전운, 자객공천(2/26) 운동권출신, 한홍련·이석기 석방 요구했던 사람, 극단적 세력은 배제해야 한다(2/27) 비명횡사, 격양, 갈등의 골,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깊어진 상태, 분당, 진짜 민주당, 공천갈등, 탈당자 속출, 연산군처럼 반하는 인물 쳐내고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둔다, 개인의 방탄만 생각, 전체주의적 사당, 계파갈등이 절정으로 치달는 양상,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2/28)</p>

〈표 2〉 여야 공천 보도 언어 차이

‘친명계’, ‘비명계’, ‘비명횡사’, ‘비명공천’ 등 정치권 내 계파갈등을 스포츠팀의 중계 보도하듯 그대로 퍼나르기만 하는 모습도 문제적입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부정적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는 당에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여, KBS가 거대 양당의 갈등 상황을 더욱 선정적으로 확산·강화하고 특정 정당에 관한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보도 형태로 꼽아보았습니다.



△KBS <뉴스9> 2024.2.16.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두고 '밀실 공천 논란', '심야 회동 보도 일축'이라는 언어로 보도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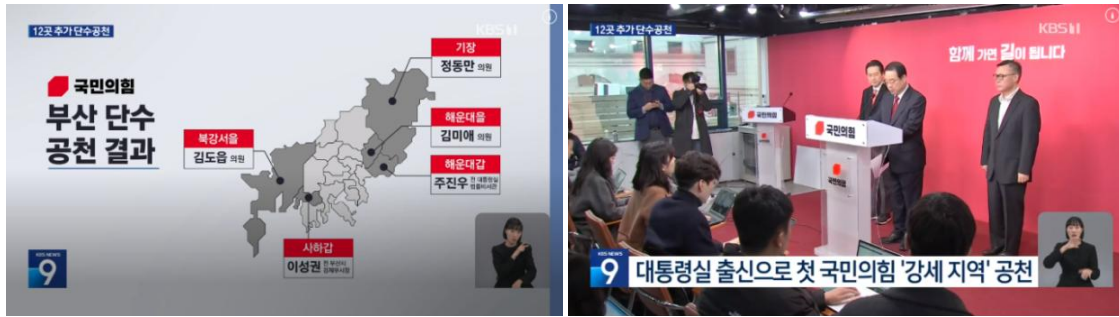


△ KBS <뉴스9> 2024.2.1. (왼쪽) / 2024.2.23. (오른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15석을 주는 방식의 딜 용도로 쓰일 것을 알고 주는 겁니까?”,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 대납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인용한 보도 화면.

## 2) 야당의 부정적 보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보도 분량에 있어서도 편향적인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2월 18일 뉴스의 3, 4번 꼭지에서는 여당인 국민의 힘의 공천 관련 소식을 그래픽 자료 등을 활용해 1분47초간 비교적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한 이후에, 야당 관련 소식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개혁신당 내홍 격화'라는 내용과 묶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진행 소식은 실리지 않았고 야당의 갈등 상황만 부각하는 등 정보의 불균형, 보도 태도의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 KBS <뉴스9> 2024.2.18

“먼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자 열두 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공천자 명단에선 대통령실 참모였던 인사의 이름 석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 KBS <뉴스9> 2024.2.18.

“이번엔 야권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여기에 녹색정의당이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대신 지역구 후보를 연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2월 25일 5번째 꼭지에서는 여야가 상대 당의 공천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김민석 실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반면, 이후 국민의힘의 ‘공방’은 훨씬 저격에 가까운 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도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의원들에 대한 저격과 비방이 주를 이루면서, ‘상호 날선 공방’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날선 공방과 의혹 보도에 가까운 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5.

“공천과 경선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각 당은 상대방 공천에 대한 평가에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시스템 사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라고 고까지 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이수진 의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의혹이 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2월 28일 뉴스의 4번 꼭지에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당이 여야의 공천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타당 합류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민주당의 공천 비판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번 꼭지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 소식을 다루고 있으나, 공천 진행 상황을 전달하며 ‘비교적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은연 중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의 공천’과 ‘무탈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여당의 공천’이라는 대조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편향적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 KBS <뉴스9> 2024.2.28

“이낙연 대표는 박 의원의 합류가 옳았다는 걸 결과로 입증하겠다며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호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8

“또 다른 제3세대 정당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탐욕 경쟁', '취업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성 정치인, 이른바 '여의도 고인물'들을 집으로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8

“오늘(28일) 발표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김기현 의원과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은 경선에서 승리했고, 조수진, 전봉민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은 탈락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8.

“현역 의원 우세 속에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추천제를 통해 사실상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컷오프 가능성이 높아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 : "(선출 절차가) 흥행 물이식으로 가는 데는 결단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황야에서 존경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1차 경선 발표에 이어 오늘도 경선 결과 집계 과정을 후보 측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 3) 이미지의 사용: 자료화면으로 자주 등장하는 여당의 선거유세장면과 ‘탁 트인 한강뷰’

뉴스 보도에 등장하는 시각자료 사용에 있어서도 편향된 태도가 보였습니다. 2월 20일 11번째 보도 꼭지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 의견을 전하는 장면에서, 인파에 둘러싸인 한 위원장의 유세 장면을 오랫동안 비춰주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오디오 내용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뉴스 화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파에 둘러싸여 환한 모습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 공약을 소개하는 슬로건 장면, 인파에 둘러싸여 1보 전진조차 어려운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와 관련한 보도 같습니다.



△ KBS <뉴스9> 2024.2.20.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19일)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김영주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정당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월 23일에도 공천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과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보도에서, 보도의 마무리 시점에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 장면을 여러 차례 내보이며 ‘국민의힘이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멘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 유세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 KBS <뉴스9> 2024.2.23.

“국민의힘은 내일(24일)까지 지역구 19곳에 대한 경선을 진행하고 일요일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월 26일 뉴스에서는 양당의 공천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화면에 ‘한강뷰’가 등장했습니다. ‘한강권역의 공천이 치열하기 때문에’ 들어간 중립적인 자료화면 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시각적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한강뷰’와 ‘상대적으로 여당의 잡음이 적고 무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가 만나니, 오묘한 은유가 발생합니다.



△ KBS <뉴스9> 2024.2.26

“아직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 등 우세 지역에서는 국민 추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문제점2. 소수정당에 대한 보도가 부족하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보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식 일색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방송과 언론의 책무이나, 거대양당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여야의 공천갈등, 계파갈등 등에 집중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의 소수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싸움을 중계하듯 각 당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자극적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유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거대양당구조로만 흘러가는 까닭 중에는, 거대양당에 대한 소식만 줄기차게 보도하는 언론의 책임도 크게 한 몫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친명계’, ‘비명계’ 등 ‘편가르기 정치’를 확산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무비판적 ‘퍼나르기식’ 보도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위해 선거구제도를 변경해 사표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으나, 이마저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그들만의 양당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소개와 정보, 정책과 행보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서, 특히나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KBS <뉴스9> 2024.2.18

녹색정의당이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화면으로 실렸다. 그러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보도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KBS가 균형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문제점3.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 행태가 보인다

#### 1) 무비판적 단순 받아쓰기 보도

세 번째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받아쓰기’ 보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국을 돌며 남발하고 있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의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들을 아무런 맥락이나 검토도 없이 단신 뉴스로 보도하는 행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2월 16일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을 2023년 대비 14.7%나 삭감(33년만의 첫 예산 삭감이라고 합니다.)한 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 KBS <뉴스9> 2024.2.16.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 지원하겠다고 과학의 수도 대전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과학기술인재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의 졸업식에 참석해 내년 연구개발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KBS의 보도에서는 당시 <민생토론회> 자리를 찾은 한 졸업생의 R&D 예산 삭감 항의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항의 발언과 동시에 경호원이 졸업생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아 제지한 후 장외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와 ‘R&D 예산 삭감’ 문제로 보도했으나, KBS는 해당 졸업생의 ‘신분’에 주목하며 32초짜리 단신 뉴스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KBS가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해주는 방송, 정권을 호위하는 방송으로 전략했다는 인상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 KBS <뉴스9> 2024.2.16.

“앞서 보신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추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퇴장 조치됐습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연구개발 예산 복구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자 경호원들이 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와 오찬을 가졌다는 단신보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민생토론회> 소식에 대한 요약 보도가 연일 KBS 뉴스를 통해 방송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토론회> 보도의 경우 각종 규제 완화, 원자력발전에 관한 지원 강화 등 친기업·친자본·친개발 일색인 정부 정책을 ‘일부 시민들의 입을 빌려’ 정책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KBS <뉴스9> 2024.2.18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 '오징어게임' 시즌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빠른 투자 진행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1.

“이른바 절대 농지라고 해서 온갖 규제에 꽂혀있던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수직 농장을 지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편의 시설도 농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농촌에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KBS <뉴스9> 2024.2.21.

“윤석열 대통령이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올해를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이 재도약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10조 원 가까운 파격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 2) 정권 홍보 위한 ‘빌드업’ 보도

정권/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빌드업’을 펼치는 듯한 뉴스 보도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2월 16일 뉴스에서는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 측 위성정당의 행보를 소개한 후, (국민의힘 측 위성정당의 행보가 나오리라 기대한 차례에서) 뜬금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울편입 경기분도 원샷법 발의’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꼭지 안에서는 전통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환영하는 인파로 소란스러운 모습(확찬 화면, 환호하는 시민들의 음성)을 담아 ‘여론이 정권에 매우 우호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2월 22일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원전 산업 확대와 육성을 강조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받아쓰기하면서, 보도의 말미에서 대통령이 방문한 어시장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과 박수치는 소리 등을 오래, 크게 넣었습니다. 줄을 선 시민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가 하면, 기자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큰 현장의 환호 소리는 ‘환영받는 정부/정책’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정권 홍보 메시지가 강하게 실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 KBS <뉴스9> 2024.2.16.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총선 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른바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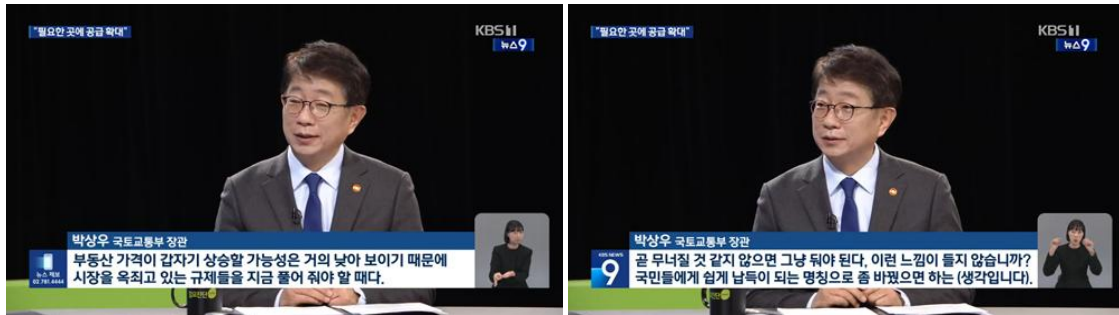


△ KBS <뉴스9> 2024.2.22.

“윤 대통령은 창원의 대표 어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소비도 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후된 창원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방산과 원전 산업을 중심으로 20조 원 이상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와 ‘부동산 규제를 풀 적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보도됩니다. 특이한 점은, 취재 내용이 아닌 장관이 KBS의 타 프로그램에 출연한 내용을 편집한 보도였다는 점입니다. 새해 초 KBS가 기획한 ‘대통령 특별 대담’ 재탕방송을 연상케 하는 보도였습니다. (KBS는 대통령 특별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후 설 연휴 오전을 노려 재방송까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첫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뒤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보기 멀쩡한 건물을 왜 재건축하느냐는 재개발 반론에 대해 ‘곧 안 무너지니까 불편하고 낡고 물새고 해도 계속 살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개발중심, 시장중심, 건축자본 중심의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습니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압축적인 홍보를 담고 있어 정부만을 위한 광고 방송이 아닌가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 KBS <뉴스9> 2024.2.1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이 부동산 규제를 풀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재건축·재개발의 핵심은 필요한 곳, 즉 외곽이 아닌 도심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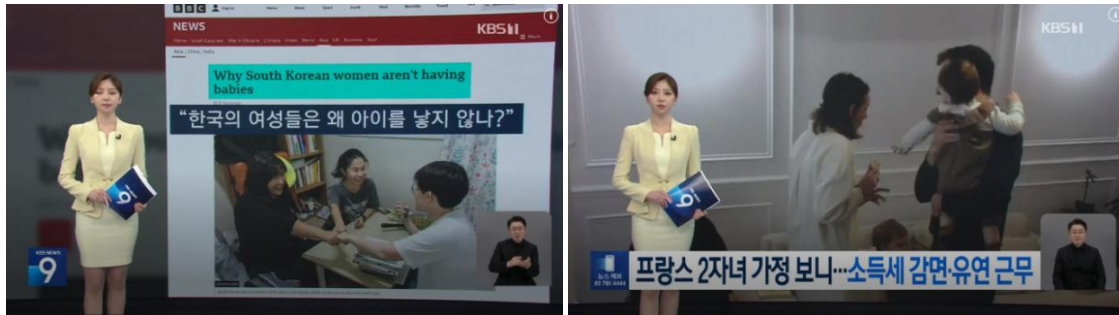
2월 19일에는 의료파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이후 정권의 대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라, 진정한 방침이라기보다는 이번 사태의 빌미로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빌드업(build-up: 특정한 결과를 위해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 KBS <뉴스9> 2024.2.18.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부터 국민의 의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공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2월 29일 뉴스에서는 먼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각종 수당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성공적 효과를 보았다는 점을 취재한 이후, 다음 꼭지로 한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내용을 연달아 보도합니다. 해마다 최저출생율을 갱신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지원금 제공 등의 단편적 출산장려정책이 얼마나 한계적인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단순 소개하는 보도는 어딘가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을 받아쓰기만 하는 정권 홍보 방송, 비판적 관점이 빠진 허수아비 방송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 KBS <뉴스9> 2024.2.29.

“한국의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나?” 영국 BBC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집중 조명한 기사 제목입니다. 일찌감치 저출생에 대응한 프랑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68명입니다. 한국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18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이가 둘 이상인 비율이 55%로, 두 집 가운데 한 집 꼴입니다. 둘째가 귀한 우리와는 대조적이지요. 자녀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프랑스의 출산과 육아 환경은 어떨까요? 파리 송락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9.

“한국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법적으로 갖춰져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대표적이지요. 문제는 대체 인력이 부족해 정말 필요할 때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다는 건데요. 정부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KBS <뉴스9> 2024.2.29.

“정부는 올해부터 인재채움뱅크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운영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구인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업을 찾아 채용을 제안하고, 하반기부터는 동료의 '육아기 단축 근로'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IV. 나가며

KBS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KBS <방송강령>). 2주간의 KBS 메인 뉴스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KBS가 정치 보도에 있어 균형을 유지했는지,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하였는지 질문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점수는요(?), 탈락입니다.

KBS 뉴스 보도에 관한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모니터링 후기를 담아봅니다.

우리는

- 거대양당 중계방송 말고, 다양한 소수정당의 정보까지 균형 있게 전달하는 뉴스
- 정부 정책에 관해 다양한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여 언론의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뉴스
- 선정적인 '막말'을 걸러낼 수 있는 뉴스룸의 필터 능력이 빛나는 뉴스
-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세월호·이태원참사 등 국가재난에 관한 국민들의 추모와 기억에 동참하는 뉴스를 원합니다!

(끝)

민우회는 당신의 목소리가, 삶이 곧 운동이 되는 곳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성평등한 노동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활동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의 주체가 되는 활동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감시 활동  
성평등 관점으로 복지국가를 기획하는 활동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반성폭력 활동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개혁 활동  
풀뿌리로부터의 변화를 만드는 신나는 지역여성운동을 만들어 갑니다.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 최진협, 최희연

발행일 • 2024년 3월

만든이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노새, 수달, 여경, 영지)

문의 • 02-737-5763 media@womenlink.or.kr